

한라시론



유동형
진로·취업컨설팅 편편집 대표

인생 유효기간

식빵을 사면 유효기간이 있다. 식빵 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들도 역시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우리네 인생도 유효기간이 있다. 제일 마지막 시간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벗어난 기간이다.
주위 어르신들을 보면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기를 보내는데 이 시간은 유효기간을 벗어난 기간처럼 보인다. 우리들 인생 유효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나이이다.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신 지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교사로서 30년을 근무하시고 일을 찾아보시다가 프리랜서 형태의 일을 찾았다. 매일 매일 몸을 써야 하는 청소년이다. 일도 없이 빈둥 빈둥 노는 것보다 일의 양을 본인이 정할 수 있어서 이 일이 좋다고 했다. '건강하게, 즐겁게 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년을 5년이나 10년 앞두고 있다면 유효기간에 일할 직업을 생각해 봐야 한다. 아직 인생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생업이든, 돈 구어받지 않는 일이든 남아있는 시간에 할 일이 필요하다.
1년 전에 딸이 추천하는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알게 된 분이 밀라노 있다. 유명해지면서 책까지 출판하셨다. 이 분야의 자서전인 책을 보

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간단히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1세대 패션업계 리더로서 현업에서, 교수로서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조용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계신 듯하다.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 패션업계에 계시면서도 명품 옷을 즐기지 않고 본인 스타일 옷을 즐겨 입는다고 했다. "내가 패션디자이너인데 누구 옷을 좋아해. 내 스타일을 입는거지." 허황된 명성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어서 멋있어 보였다.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철저한 자기관리도 하신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간들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에 큰 뜻을 두고 계신 듯하다. 장기기증 의사까지 밝히신 것을 보면 남은 시간들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데 올인하고 계

신 듯하다.
대략 여자는 24세, 남자는 27세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60-65세까지는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이다. 이 이후가 오로지 자기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얼마 전에 양평에 본격적인 목공 작업을 하고 싶어서 자그마한 타이니하우스를 마련하신 분을 만났다. 강남에 집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만, 마냥 골프를 치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료하다고 했다. 집에 웬만한 가구들은 직접 만들 정도였다. 짜맞춤 가구를 만들 정도이니 어느 정도 수준은 되신 분이다. 본인의 남은 시간들을 목공 쪽으로 정하셨다고 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을 요양원에서 보내듯하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있게 써보자.

편집국 25시

염치



김도영
행정사회부 기자
doyong@halla.com

신호 대기로 정착한 도로에서 한숨을 돌리던 찰나 반대편 도로에는 보행자 한 명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으로 건너려 했다. 한 발을 내디뎠다 이내 안쪽으로 돌아가며 발걸음을 거둔다. 우회전 차량들이 연신 진입하는데 어느 하나 멈춰 설 기색이 없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고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 규정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차량들은 여전히 보행자를 보고도 지나가고 있다.

지난 9일 제주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현장을 취재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는 차량을 찾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몰랐다"라고 변명했지만 더 이상 모를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에만 제주에서 769건의 보행자 교통사고 18명이 숨지고 776명이 다쳤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와 건너려고 할 때 모두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영원히 정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 정지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더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시킬 수 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운전자가 보호받는 보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염치없는 일은 아닐까.

뉴스-in

개발공사 사업 다각화 전문가 발탁하나

어제 사장 후보 면접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22일 제주 시내 모처에서 지난 15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장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
임원추천위원회는 면접 심사 후 복수 후보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오 지사는 이중 1명을 내정해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
한 공직자는 "그동안 공직 출신과 사기업 출신들이 번갈아가며 사장으로 발탁됐으나 특히 민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온 만큼 이번에는 어떤 인물을 선택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지사께서 그동안 사업 다각화를 강조해온 만큼 후임 사장 인선에 이 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성적자료 유출 피해 안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고 2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사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응 조치, 피해 구제 등을 안내.
이번 텔레그램방에 유출된 내용에는 제주를 포함 전국 15개 시도에서 지난해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학생 성적표의 학과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자료 등 개인정보가 포함.
제주에서는 이 시험에 25개 고등학교에서 4500여 명이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2일 "오늘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23일까지 학생들에게 정보 유출 내용, 피해 접수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알리도록 했다"고 언급.

사설

장애인복지관 계약변경 투명하게 공개하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복지관 운영주체 변경을 놓고 논란이다.
제주도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주체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로 변경키로 했다. 2000년 개관 이후 23년간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위탁받아 운영해왔는데 돌연 주체가 바뀐 것이다. 제주도는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 개입 의혹 속에 불합리하게 진행된 위·수탁 계약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회의 반발은 통상 수탁법인인 비리나 장애인 인권침해 등 큰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이 이뤄졌는데

갑자기 변경된데 기인한다. 연합회는 특정 정치 권력자의 개입설까지 주장하면서 계약 심사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과 위원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특정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 조항을 근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릇 행정은 물 흐르듯 해야 한다. 투명하고 고도의 합리성을 지녀야 행정의 신뢰성을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 당국은 23년간 대과 없이 운영해온 관리주체를 갑자기 변경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 권력자의 개입설까지 나오는 만큼 심사과정과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국가시험림 관리기관 소임 다해야 한다

제주 산림 자원 연구·보존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림에서 자연석이 도난당하고, 산림 자원이 무참히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40분쯤 남성 2명이 굴착기를 실은 트럭을 끌고 서귀포시 남원을 한남시험림 출입 통제구역에 자물쇠를 끼고 침입한 후 이튿날 오전 2시쯤 높이 약 180cm에 폭 60cm에 이르는 자연석을 트럭에 싣어 도주한 것이다. 자연석 주변의 연구 목적 나무 50그루도 훼손됐다.
한남시험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나무 조림지가 있으며 주로 붉가시나무, 굴거리나무 등 상록활엽수와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서식한다.
이번 도난사건의 문제는 관리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안이한 대처로 인해 불거졌다는데 있다. 한남시험림을 관리하는 국립산

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앞서 지난해 11월 말 이미 출입통제구역 내 자연석이 깨어져 있고, 나무 등이 훼손된 사실 확인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출입 금지 규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길목에 굴착기를 세웠다. 그러나 정작 경찰 신고 등 범죄자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자연석이 뺏혀 있을 뿐 도난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런 판단을 못했다는 게 연구소 측의 해명이다.
개인정원의 자연석이나 나무도 외부침입에 의해 도난 및 훼손 당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이번 사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의 극치다. 국유림을 관리하라고 소임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3년 2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부원"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주식회사 부원주택건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봉로 57(도원1동)
사내이사 최지욱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내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은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市 지원 90%\*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자보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